

맥쿼리, 해양에너지 인수...“도시가스 요금인상 우려”

지역사회 거센 반발에도 결국 투기자본 손에 넘어가 광주시·전남 8개 시군 가스 공급...이달말 요금 산정

광주시 전역과 전남 8개 시·군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해양에너지가 지역사회의 거센 반발에도 결국 맥쿼리 손에 넘어갔다. 당장 이달 말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을 앞두고 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맥쿼리한국인프라투자회사(이하 맥쿼리인프라)는 15일 도시가스 공급업체 해양에너지와 서라벌도시가스 지분을 100%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해양에너지는 광주와 나주·화순 등 전남 8개 지역에, 서라벌도시가스는 경북 경주와 영천에 각각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현재 국내 사모펀드 클

렌우드프라이빗에쿼티(PE)가 두 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지분 인수를 위해 맥쿼리인프라가 지급하는 거래대금은 총 7980억원이다. 인수 절차는 다음 달 마무리된다.

광주지역 9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투기자본 맥쿼리의 해양에너지 인수 저지와 도시가스요금 인하를 위한 시민대책위'는 이날 광주 순환도로 영업소에서 피켓 시위를 열고 16일 오전에는 광주시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최희용 참여자치21 정책위원장은 “해양에너지를 두고 그동안 GS에너지는 5000억원, 글렌우드는 배당금까지 2500억원에 달하는 차익을 거둔 것

으로 보인다”며 “공공재 영역에서는 시장 수익률 이상을 받아가서는 안된다. 도시가스 요금의 무분별한 인상을 막고자 해양에너지의 시민자산화와 시 차원의 물가대책위원회 개최를 위한 투쟁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 광주시의회도 해양에너지 인수 움직임에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맥쿼리인프라가 자산운용을 위탁한 집합투자업자 맥쿼리자산운용(유)은 도로 및 철도와 항만, 도시가스, 폐기물처리업체 등 아시아지역 인프라 투자로 유명한 호주 기반 운용사다. 지난해 초에는 MBK파트너스로부터 2조원 규모의 대성산업가스를 사들였다.

해양에너지 측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용역을 거쳐 오는 7월 중 도시가스 요금이 확정된다”며 “지난 3년 동안

광주 도시가스 요금은 동결됐지만 투자 확대와 물가 상승을 반영해 요금이 인상돼야 안정적 경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해양에너지 노동조합은 최근 맥쿼리인프라에 임금·고용을 보장해달라는 요구를 전달하기도 했다. 해양에너지는 162명의 정규직 인력을 운용하고 있다.

1982년 5월 11일 설립된 ㈜해양에너지는 광주시 광산구 하남동에 본사를 두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광주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은 99.7%로, 공급권역 거주세대 63만3582가구 가운데 63만1681가구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해양에너지 영업이익은 GS에너지로부터 글렌우드PE가 인수했던 2018년 165억원에서 2019년 216억원, 지난해 225억원으로 2년 연속 증가했다. 올해는 총 450억원의 투자예산을 책정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시, 전남 3개업체와 김장대전 공동구매 협약

광주시는 15일 시청 문화경제부시장 집무실에서 전남업체인 신안 비금농협과 함평 나비골농협, 여수 나래식품과 빛고를 사랑나눔 김장대전 공동구매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빛고를 김장대전에서 사용될 김치 원부재료 공동구매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광주와 전남의 농식품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빛고를사랑나눔 김장대전 원부재료의 안정적인 공급체계 확립 ▲광주세계김치축제, 김장대전 행사 참여 및 홍보 ▲광주-전남 지역 농식품 산업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강화 등이다.

이번 협약으로 100% 국내산 김치원부재료와 함께 표준 레시피를 활용해 우수한 품질과 저렴한 가격이 장점인 빛고를사랑나눔 김장대전 행사에 사용될 신안 소금과 함평 고춧가루, 여수 멸치액젓 등 고품질의 김장김치 부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게 됐다.

조인철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시민들에게 고품질의 김장김치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광주-전남의 도농상생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빛고를 사랑나눔 김장대전은 배추 김장김치와 함께 비건김치를 새롭게 선보일 예정으로 오는 11월 29일부터 12월 19일까지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개최할 예정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6·15공동선언 21주년 평화통일대회 15일 오전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 강당에서 6·15공동선언 발표 21주년을 맞아 열린 '자주와 평화 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평화통일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한반도기를 흔들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전남도 36개 장애인 주거시설 30일까지 인권실태 전수조사

전남도는 15일 “도내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오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도와 시·군 공무원, 시·군 복지관 직원 등 70명이 15개 시·군, 36개 시설을 대상으로 조사한다.

거주시설 대표, 종사자, 입소자 표본 면담을 통해 시설 인권 실태를 조사한다. 입소자 인권피해 여부, 정기진료 여부 등을 면담한다. 시설운영위원회, 종사자 성범죄 경력조회 여부, 인권지킴이단 설치 및 운영 등을 점검한다. 내외부 사고 위험성, 접근성, 위생시설, 안전시설, CCTV 설치 현황을 살핀다. 전남도는 전수조사를 거쳐 인권 침해 사실이 드러난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형사 고발 등 조치를 할 계획이다.

전남에는 장애인 거주시설 39개소(종사자 713명, 입소자 1242명)가 있는데, 3개 시설은 최근 실태조사가 이뤄져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최근 화순에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일어난 인권피해 사례 후속 조치 성격이다. 화순에서는 지난 5일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10대 청소년이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해당 청소년의 몸에선 명 자국과 상처가 발견돼 경찰이 확대 조사를 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이용섭 광주시장 “붕괴 사고 면목 없고 죄송”

‘안전한 광주 실현’ 최선

이용섭(사진) 광주시장은 15일 철거 건물 붕괴 사고에 대해 거듭 사과하고 피해자와 가족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주문했다.

이 시장은 이날 확대 간부회의에서 “있을 수 없는 사고에 면목 없고 죄송할 뿐”이라며 “소중한 시민들을 지켜드리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너무나 힘들다”고 토로했다. 참석된 시와 자치구 간부들은 묵념으로 회의를 시작했다.

이 시장은 “임중도원(任重道遠)이라는 말처럼 해야 할 일은 막중하고 가야 할 길은 멀다”며 “저부터 낡은 행정과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버리고 시민 안전을 시정 제1 가치로 삼아 안전의 기본부터 바

로 세워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사건, 사고, 재난으로부터 시민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간부들을 독려했기도 했다.

또 기존 광주시 슬로건인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에 안전을 더해 ‘정의롭고 안전하고 풍요로운 광주’를 실현하자고 했다.

이 시장은 “다시 한 번 고인들의 명복을 받고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면서 “사고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직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고품질 쌀 유통 신청사업 모두 선정

국비 96억 확보...브랜드 육성 탄력

전남도가 농림축산식품부의 ‘2022년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 공모사업’에 7개 시군의 통합RPC와 농협에서 신청한 사업이 모두 선정돼 국비 96억원을 확보했다.

이번 공모 결과 전남도는 국비 총 지원액의 36%를 확보해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 전남 쌀 생산·유통 활성화와 함께 지역별 대표 브랜드 육성에 탄력이 붙고, 품질 고급화와 수확기 벼 확대 매입을 할 수 있게 돼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선정 사업은 ▲나주시 통합RPC ‘가공시설 현대화사업’과 벼 건조저장시설 ▲해남군 옥전농협 ‘노후 RPC 집진시설 개보수’와 땅끝농협 ‘벼 건조

저장시설’ ▲고흥군 풍양농협 ‘벼 건조저장시설’ ▲보성군 통합RPC ‘노후 RPC 집진시설 개보수’ ▲장성군 통합RPC ‘노후 RPC 집진시설 개보수’ 등이다. 총사업비는 국비 포함 240억원이다. 나주의 경우 통합RPC의 가공시설 현대화사업에 159억원, 벼 건조저장시설에 24억원 등 총 183억원을 들여 산물벼 저장에 필요한 사일로, 건조기, 냉각장치 등을 설치한다.

강종철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2022년 수확기 이전 사업 완료로 목표에 인허가, 실시시설 등을 단계별로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해 전남 쌀 유통 활성화 기반을 지속해서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우리동네
sMile aGain

MG지역상생프로젝트
내수경제 살리기

창립40주년 및 525새마을금고 날 이벤트!!

대 상 대광새마을금고 MG체크카드 회원

혜 택

- 하나, 5만원이상(영수증 합산 가능) 고급점시세트
- 둘, 3만원이상(영수증 합산 가능) 밀폐용기 세트
- ※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프랜차이즈매장 제외

내 용 MG체크카드 이용자

신 청 MG체크카드 사용영수증 대광새마을금고 방문제출 <회원별 1회 한함(중복지급불가)>

※ 선착순 선물 지급(물품소진시 조기종료)



본점(계림오거리) 062)222-5851

서남지점(문화전당역) 062)227-1532

자산지점(법원정문 앞) 062)222-1431